

잘 만든 여행안내서 한권이 아쉽다

국내 고궁이나 관광명소를 배낭여행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노란표지의 책자를 뒤적이며 주위를 두리번대는 모습을 자주 대하게 된다. 국내 모 신문사에서도 번역 출간한 이 노란표지의 안내책자는 일본 다이아몬드 박사의 세계여행안내서리즈물인데 외국배낭족에게는 필수적인 '여행동반자'로 손꼽힌다. 웬만한 나라의 여행정보는 단 한권에 압축시키고도 구성, 내용, 정확성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

세계여행안내책은 그렇다치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국토를 돌아보는데 필요한 국내여행 안내책은 어떤 실정인가. 여행이 여름 한철에 몰리던 때를 벗어나 사시사철 레저로 자리잡음에 따라 여행안내책 출간도 활발해져 대형서점의 어엿한

상설코너를 확보하고 있다. 전국관광지에 대한 4~5줄의 설명과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간단한 약도, 교통편 등만 알려주던 종전과는 달리 요즘 안내책들은 저렴한 숙박시설은 물론 어느 음식점에 가면 무슨 별미를 맛볼 수 있다는 등의 '알짜 노하우'를 실어 여행자들의 '진짜 길잡이'를 자처하고 있다.

특히 올 여름엔 섬 집중탐구, 문화기행 등 테마별로 기획한 책들의 출간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그럼 서점 여행코너에 수북히 쌓여 있는 국내여행 안내책 가운데서 배낭부피를 고려해 한 권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분명 무리이다. 남해안 일주라도 할라치면 3권은 가져야 외지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다. 일단 목적지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다 싶으면 상세하고도 정확한 교통편 정보가 빠져 있고 인근지역과의 거리, 위치 등을 대충 짐작케 하는 지도도 생략된다. 이런식으로 한 권의 책 안에 충실한 여행길잡이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정보를 다 갖춘 책이 드물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매년 펴내는 유럽여행가이드북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학측은 여름방학 때면 유럽여행에 나서는 학생 중에서 70명을 선발 여행리포트를 써내게 한다. 그렇게 해서 모은 저렴한 뒷골목 여관, 알뜰교통편, 인심 좋은 음식점의 특별메뉴 등 싱싱하고 정확한 여행정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다.

여행안내책을 만드는 이는 여행의 첨병이다. 자칫 오보나 혼동하기 쉬운 정보를 전달했을 경우 그 책을 믿고 여행하는 자가 맛보는 외지에서의 낭패감은 누구의 책임인가.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다. 우리가 자신있게 만들지 못한 한국여행 안내책을 번역해 외국인에게 추천할 수도 없지만 외국인이 펴낸 한국여행안내책을 번역해 우리가 쓸 수도 없지 않는가. — 정혜옥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소설 「동물농장」 「1984년」을 남겼고, 소설만큼이나 흥미로운 삶을 살았던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평전 「조지 오웰, 감춰진 얼굴」(마이클 쉘던 지음/김기에 옮김, 성훈)에는 한때 서점의 점원으로 근무했던 조지 오웰이 그 직업을 통해 책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어떻게 달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실려 있어 재미있게 읽힌다.

북 러버스 코너

그 상점에는 온갖 종류의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고, 그들은 1936년 11월에 발표된 「서점의 추억들」이란 수필에서 밝힌 오웰의 묘사를 인용하면 "준납작들로부터 버스운전사들"에까지 이르렀다. 누구나 그가 일을 잘했다고 했지만, 그는 어떤 손님들, 특히 책표지의 색깔은 기억하나 책제목이나 저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책을 찾으러 오는 손님들에겐 짜증이 났다. 그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할 사람들, 그러나 서점에서는 특별한 기회를 가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적었다. 그는 특별한 책들을 주문하거나 책을 사러올테니 다 팔지 말라고 부탁하고서는 다시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다. 그는 그런 요청을 한 사람들의 반 정도는 그 책을 찾으러 다시 오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그는 그런 부탁 때문에 쓸

데 없는 일들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 중 대다수는 애초부터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에 신경질이 났다. 책을 주문하는 것만으로 "그 책은 그들에게... 그들이 책을 이미 산 것 같은 환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만족했다고 그는 결론지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종류의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그는 책시장에 대해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독자들의 취향과 출판은 사업이지 박애적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책이란 하나의 상품이고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소비하는 하나의 제조품이었다. 또한 그는 책을 귀중하고 심오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었으나, 실제로 책이란 어떤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공급되도록 소세지처럼 쉽게 양산되어 빨리 게겉스럽게 먹어치워지는 것임을 보았다. 그는 탐정소설이 계속 잘 팔리는 것을 보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 서점의 대여부를 찾는 한 고객은 매주 적어도 너댓권의 탐정소설들을 읽었고, 같은 책은 두번 다시 빌려가지 않는 것 같았다.

"분명 저 무섭도록 억수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매년 읽히는 페이지 수를 계산해보니 한 에이커의 4분의 3에 해당된다)들 전부가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저장되었을 거다. 그는 작가의 이름도 안보고 그냥 책을 한

번 훑듯 쳐다보기만 하고도 자신이 그 책을 이미 읽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다."

모든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보물처럼 중시하기를 상상하고 싶어하겠지만, 어떤 책들은 한번 "소유되었다"가 한번 맛만 보이고 던져져 버려졌다.

오웰은 서점에서 일한 후 책을 특별한 물건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말했다. 그는 책이란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 또는 손수레에 실려 여기저기 옮겨다녀야 하는 것임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었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이런 시간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책의 장정이나 그 종이냄새에 매혹되었던 그의 예전의 느낌은 사라졌다. 매일같이 상점에 서서 그렇게 많은 책들을 보는 것에 싫증을 느꼈다.

"한번에 오천 내지 만권의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것을 보면 책이 지겹고 약간 메스꺼워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이었다. 물론 책이 수북이 쌓여 있고 그 위에 먼지만 쌓이는 것을 보고 압도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는 집에서 책 속에 파묻혀 지냈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재미있는 책제목들을 발견하고선 기쁨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는 특히 옛잡지에 관심이 많아서 「젠들 먼즈 매거진」 중 몇권들, 색커리의

「콘힐」과 「스트랜드」를 수집했다 (마지막 책에서 그는 1890년대에 「스트랜드」에 수록된 설록 홈즈의 소설의 원본을 읽는 기쁨을 만끽했다.)

"이 오래된 잡지가 가진 매력은 그 잡지들이 적혀 있는 날짜에 대해 그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당시의 사건들을 다루는 그 책들은 일반 역사책들에선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정치풍조나 경향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북 러버스 코너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그의 마음에 든 것 중의 하나는 1880년대의 「걸즈 오온 페이퍼」를 수집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인기있는 작품에 진지함과 무지함이 뒤섞여 나타나는 것이 의아스러웠고 그 책의 우스운 부분을 읽을 때 혼자 웃어가며 몇시간씩 그 책의 책장을 넘기곤 했다. 그는 브렌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걸즈 오온 페이퍼」를 여러권 아주 재미있게 읽었소"라고 말했다.

"신문의 투고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두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숙녀다운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담의 자식들은 인간이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친상간을 범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문제가 된 것 같지 않았습니"

출판저널

통권 제133호 / 1993년 8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蕙玉 崔允源
李聖洙 金重植 裴銀姬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姈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타이피아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현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鏞復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林嬉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爽鍾	鄭雲瑛	鄭錫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으십시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일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은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